한화투자증권

2025년 4월 28일
산업분석

은행 (Positive)

2월 연체율: 금리 vs. 경기

▶ Analyst 김도하 doha.kim@hanwha.com 3772-7479 / RA 권지우 Jiwoo.kwon@hanwha.com 3772-7689

국내은행의 2025 년 2 월 말 연체율은 0.58%(+7bp YoY)로 상승했습니다. 기업 경기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건전성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겠지만,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은행업종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2025 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. 변수는 법인 중소기업과 5 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입니다.

국내은행 2월 말 연체율 0.58%(+7bp YoY)로 상승

- 국내은행의 2025년 2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 이상 연체 기준)은 0.58%(+7bp YoY)로 상승 (그림 1~6)
-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.90%(+14bp YoY), 자영업자 연체율은 0.76%(+15bp YoY)로 상승하면서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.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.10%(-8bp YoY)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
- 가계 연체율은 0.43%로 1bp YoY 상승에 그침. 신용 등 일반대출은 0.89%(+5bp YoY), 주택대출 연체율은 0.29%(+2bp YoY)로 상승폭이 재차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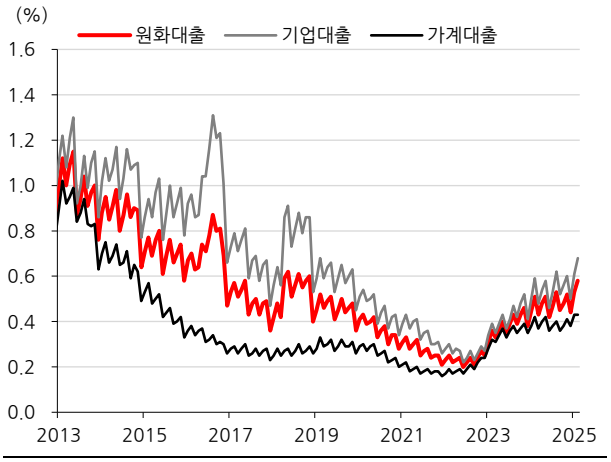
연체채권은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

-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2월 말 13.6조원(+17% YoY)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 (그림7)
- **기업 (추정)**: 2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+19% YoY로 추산. 법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모두 연체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을 지속 상회하고 있으나 증가 속도는 하락세를 나타냄 (그림10)
- **가계 (추정)**: 2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+6% YoY로 추산. 90%대까지 높아졌던 YoY 증가율이 2022년 하반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아진 점은 긍정적. 다만 당사가 염려하는 2020년 취급된 5년 고정금리 주택대출의 영향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(그림10)
- 2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.9조원으로 전년 동월 수준에 그침 (그림8). 월 중 정리(상·매각)된 연체채권은 1.8조원으로 38% YoY 증가함

경기가 금리 하락의 영향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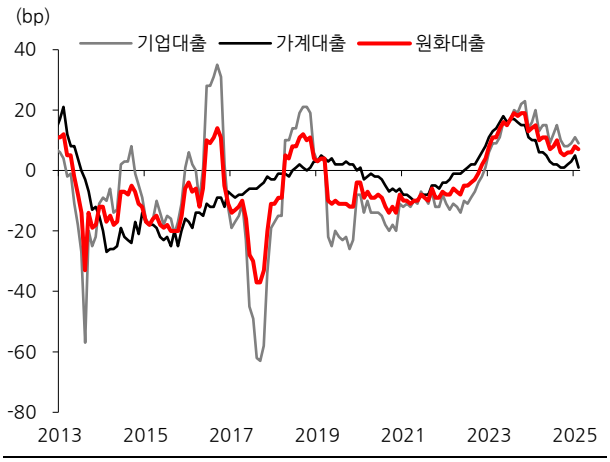
- 시장금리 하락과 경기 부진은 건전성에 각각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.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과거 미중 무역분쟁 당시(2018~2019년) 수준을 드디어 상회하기 시작. 정상 궤도대로라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건전성도 개선세를 나타낼 시점에 가까워졌지만, 기업 경기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변곡점이 지연될 수 있음
-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 연체율의 고점 도달 시기를 이연시킬 수 있겠으나,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의한 건전성 완화가 더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
- 한화투자증권은 은행업종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. 변수는 법인 기업의 연체채권 증가 속도와,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출의 연체율 추이가 될 것으로 전망

[그림1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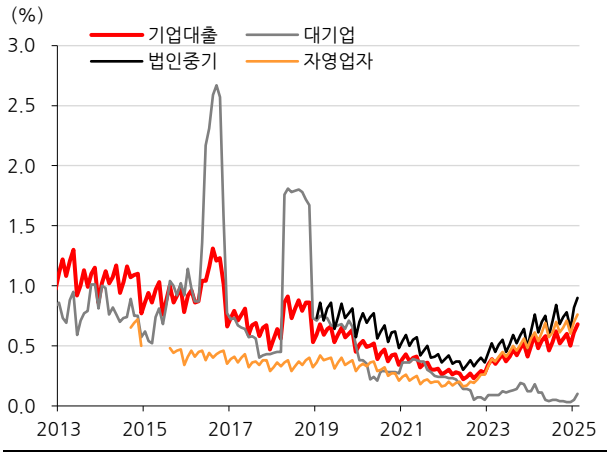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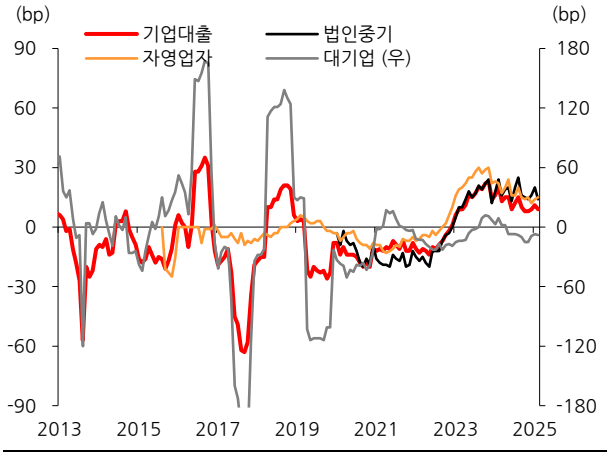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3]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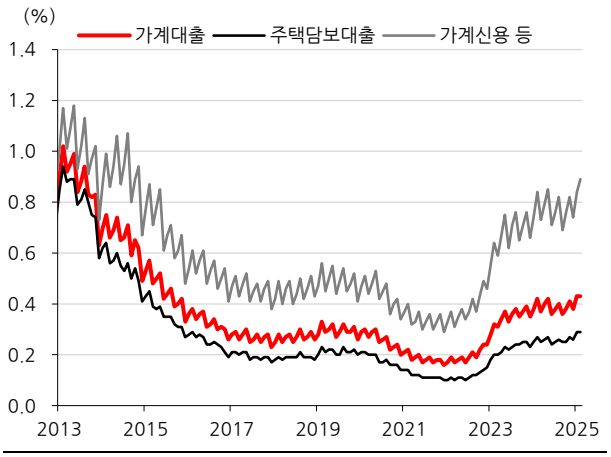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4]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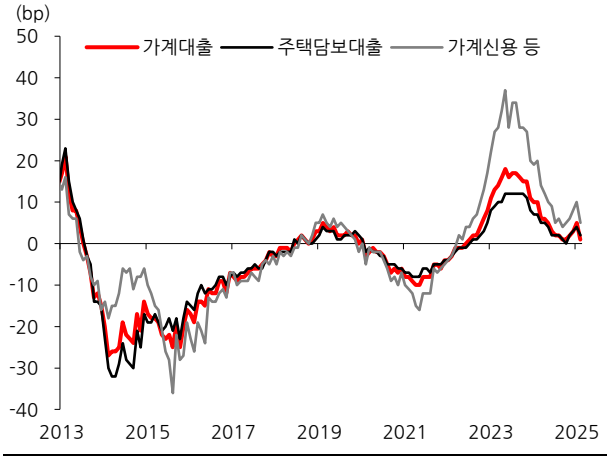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5]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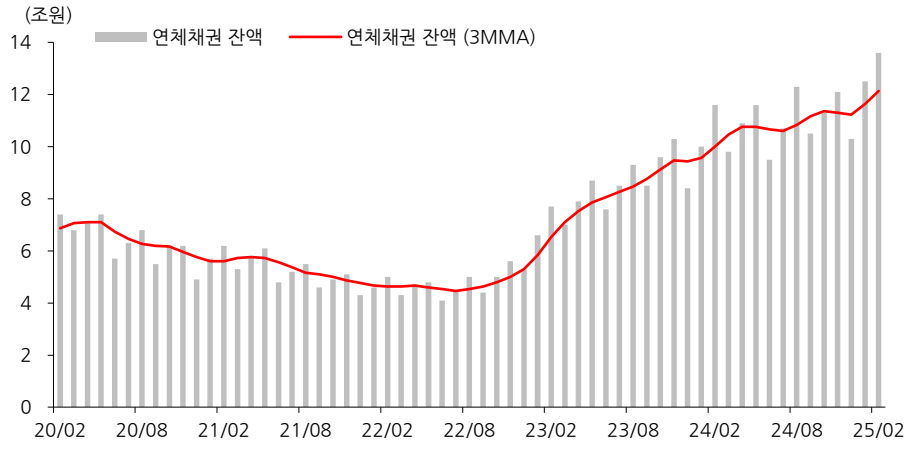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6]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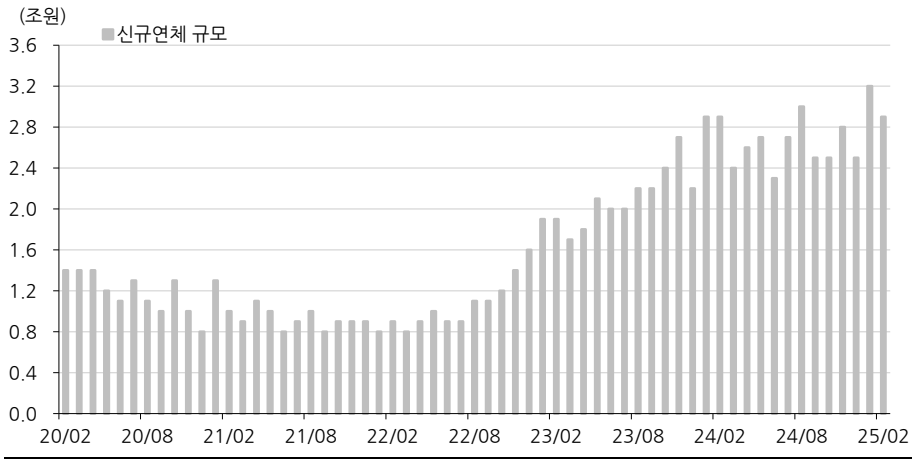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7]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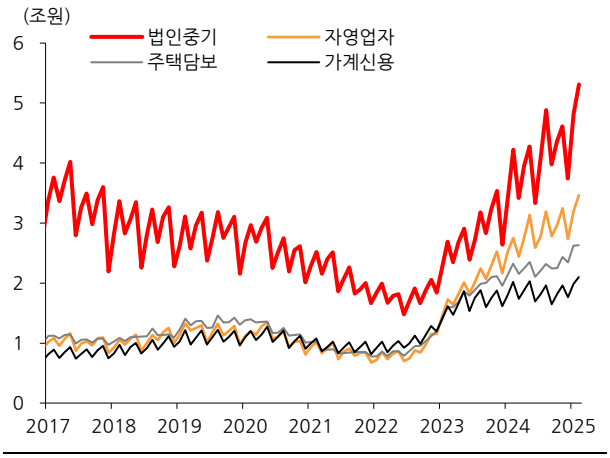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8]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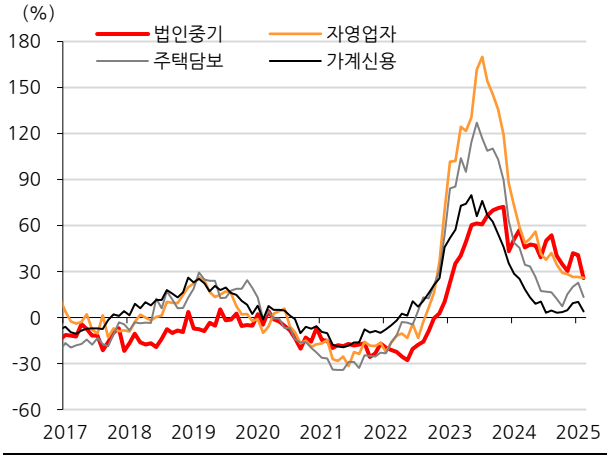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9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0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Compliance Notice] (공표일: 2025 년 4 월 28 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김도하, 권지우)
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종목 투자등급]

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+15%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(매수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또한 절대수익률 -15~+15%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(보유) 의견을, -15%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(매도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,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.

[산업 투자의견]

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(긍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(중립적) 의견을,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(부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.

[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] (기준일: 2025 년 3 월 31 일)

투자등급	매수	중립	매도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중	90.9%	9.1%	0.0%	100.0%